

성찰 #1:

하느님께서 자연을 통해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당신에게 어떻게 드러내셨나요? 자연을 묵상하며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당신의 이해는 어떻게 깊어졌나요? 위대한 자연의 책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나요?

- 자연의 경이로움과, 창조때 부터 지금까지 돌보시는 하느님의 한결함과 성실함에 감사.
-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다가옴.
- 자연의 섭리에 맡기겠다는 겸손한 마음이 올라옴.
- 웅장한 자연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느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.
- 하느님의 창조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감동.
- 인간의 (신앙) 여정이 자연의 Cycle 과 닮았다는 창조의 신비를 느낌.
- 자연 안에서 존재하는 나를 통해, 피조물로서의 겸손함을 느낌.

성찰 #2: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듣고 있는 울부짖음은 무엇입니까? 이러한 울부짖음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니까?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고통을 초래하는 시스템이나 문화(예: "쓰고 버리는 문화")에 젖어 있습니까? 변화가 필요한 행동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?

- 가난과 자연 파괴에 무관심한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라는 하느님의 외침.
- 세상의 Trend 를 답습하며, 자연과 이웃에게 무관심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느님께 보여 드리게 된 미안함.
- 가난한 삶, 단순한 삶으로 생활 양식을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옴.
- 자연 파괴가 가난한 이웃에게 더 치명적임을 인식하고, 그들이 하느님께 다가가는 자유 의지의 실천이 가능하기를 바라는 마음.
- 전쟁과 폭력이 약한 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만연한 세상에 대한 인식.

- 현세를 아프게 바라볼 하느님의 인내에 감사드리며, 나 자신의 생활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.
- 내가 구입한 먹거리와 생활 용품을 스스로 버려야 할 때의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 속에서,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하겠다는 생각.
- 인간의 지역 개발로 파괴되어 가는 주변 자연을 보며 느끼는 실망감과 무력감.

성찰 #3: 무엇이 당신을 희망으로 이끌어 갑니까? 여러분이 들은 울부짖음에 대한 응답으로,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보는 희망 어린 실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?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실천한 대응이 있다면, 그것은 무엇인가요?

- 희망은 오직 하느님. 두개의 깃발에서 예수님의 깃발을 선택하는 현명함.
- 창조주인 하느님이 저희를 지켜주시리라는 신뢰.
- 하느님의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자라나고, 회생을 위한 노력하는 마음.
- 현재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을 할 수 있는 것은 기회.
- 세계 CLC 라는 단단한 조직과의 연대와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.

성찰 #4: 2025 년 동안 여러분과/또는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떻게 생태적 회심(ecological conversion)에 더 깊게 다다를수 있겠습니까?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과 지구의 울부짖음에 응답하기 위해 2025 년 여러분의 공동체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계획은 무엇이 있을까요? 위에 나온 아이디어 중에서 공감되는 것이 있나요, 아니면 다른 생각이나 의견들이 있을까요?

- 일상적인 삶 안에서 가족과 함께 자원 재활용을 실천해 가기.
-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 노력.
- 배송용 종이 사용의 폭발적 증가를 막기 위해, On-Line 구매 횟수를 줄여 가기.
- 먹거리 구입, 사용 및 보존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.

- 플라스틱에 담긴 생수 사용 대신 Tumbler 사용.

토론 중 마음에 가장 다가온 부분:

- 자연과 우리는 같은 Cycle 안에 존재한다는 인식.
- 나의 욕망 절제와 가난, 단순한 생활의 선택이 필요.
- 생태적 회심은 우리의 내적 변화가 있을때 가능.
- 세계 CLC 에의 참여로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.
-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.